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는 ‘공’과 ‘콩’의 소리를 듣고 두 단어의 의미가 다를 수 있는데, 이는 어두에서 실현되는 ‘ㄱ’과 ‘ㅋ’의 의미를 구별해 주기 때문이다. 이처럼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를 음운이라 한다. 그럼 ‘가구’에서 발음되는 두 ‘ㄱ’은 같은 소리일까? ‘가구’의 첫음절의 ‘ㄱ’은 성대의 울림이 없는 무성음 [k]이고, 둘째 음절의 ‘ㄱ’은 앞 모음의 영향을 받아 성대의 울림이 있는 유성음 [g]로 실현된다. 하지만 국어의 파열음에서 성대의 울림 여부가 의미 구별에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k]와 [g]를 하나의 음운 ‘ㄱ’로 인식한다. 이처럼 한 음운이 환경에 따라 달리 실현되는 소리들을 변이음이라 하며, 한 음운의 변이음들은 출현 위치가 서로 겹치지 않는 상보적 분포를 이룬다. 예컨대 파열음 ‘ㅂ, ㅅ, ㅈ’는 어두에서는 무성음 [p, t, k]로 실현된다. 반면 모음과 모음 사이, 비음 ‘ㅁ, ㄴ, ㅇ’과 모음 사이, 유음 ‘ㄹ’과 모음 사이에서는 유성음 [b, d, g]로 실현된다.

이와 유사한 양상은 의미를 가지는 최소 단위인 형태소에도 나타난다. 예컨대 ‘옷’은 조사가 결합되는 환경에서 ‘옷+이[오시]’, ‘옷+도[온포]’, ‘옷+만[온만]’처럼 ‘옷’의 소리가 [옷], [온], [온]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하나의 형태소가 환경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형태들을 이형태라 한다. 한 형태소의 이형태들은 의미 차이를 만들지 않고, 문법적 기능은 동일하며, 나타나는 환경이 겹치지 않는다.

이렇듯 우리는 한 음운의 변이음들을 하나의 동일한 음운으로, 한 형태소의 이형태들을 하나의 동일한 형태소로 인식한다. 한편, 하나의 형태소가 환경에 따라 그 형태가 달리 나타나는 현상은 일어나는 동기에 따라 자동적 교체와 비자동적 교체로 나뉜다. 예컨대 ‘빗다’의 ‘빗-’에 비음 외의 자음이 결합되면 [빈], 비음이 결합되면 [빈]으로 교체된다. 이는 국어에서 종성에 ‘ㄱ, ㄴ, ㄷ, ㄹ, ㅁ, ㅂ, ㅇ’만 발음되고, 자음 ‘ㅂ, ㄷ, ㄱ’가 ‘ㅁ, ㄴ’ 앞에 올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실현되는 자동적 교체이다. 반면, ‘(허리가) 굽다’의 ‘굽-’에 모음 ‘-어’가 결합될 때 [구버]가 되는 것처럼, 국어에서 ‘ㅂ’와 모음이 결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굽다’의 ‘굽-’이 동일한 환경에서 [구위]의 ‘구우’로 교체되는 것은 그 동기를 설명할 수 없는 비자동적 교체이다.

35.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구’의 두 ‘ㄱ’은 하나의 동일한 음운이다.
- ② 국어의 파열음에서 성대의 울림은 의미 구별에 영향을 준다.
- ③ 한 음운의 변이음들은 상보적 분포를 이룬다.
- ④ 한 형태소의 이형태들은 동일한 문법적 기능을 수행한다.
- ⑤ 교체는 하나의 형태소가 환경에 따라, 그 형태가 달리 나타나는 현상이다.

36. 윗글을 바탕으로, ㉠~㉣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료1〉은 음운 ‘ㅂ, ㄷ, ㄱ’가 환경에 따라 실현되는 소리가 달라지는 단어들이고, 〈자료2〉는 종성에 ‘ㅂ, ㄷ, ㄱ’를 갖는 형태소들이 환경에 따라 형태를 달리하는 교체의 예들이다.

	〈자료1〉	〈자료2〉
㉠	바지, 후보	◦잡+아[자바], 잡+는[잡는], 잡+고[잡꼬] ◦출+어[추위], 출+은[추윈], 출+고[출꼬]
㉡	더위, 온도	◦달+아[다다], 달+는[단는], 달+고[달꼬]
㉢	거위, 인고	◦떡+어[머겨], 떡+는[멍는], 떡+고[떡꼬]

- ① ㉠의 ‘후보’의 [ㅂ]와 달리, ㉠ ‘바지’의 [ㅂ], ㉡ ‘온도’의 [ㄷ], ㉢ ‘인고’의 [ㄱ]는 모두 무성음으로 실현된다.
- ② ㉠의 ‘잡+아[자바], 잡+는[잡는], 잡+고[잡꼬]’에서 환경에 따라 형태가 달리 나타난 ‘잡’과 ‘잡’은 서로 다른 형태소이다.
- ③ ㉡의 ‘더위’와 ㉢의 ‘거위’에서 ‘ㄷ’와 ‘ㄱ’은 두 단어의 의미를 구별해 주고, ㉢의 ‘떡’과 ‘멍’은 형태는 다르지만 의미는 같다.
- ④ ㉡에서 [단는]의 ‘단’, [드레]의 ‘들’, [든는]의 ‘든’은 모두, 자동적 교체의 결과이다.
- ⑤ ㉢의 [멍는]의 ‘멍’, ㉠의 [추윈]의 ‘추우’는 모두, 비자동적 교체의 결과이다.

37. ㉠~㉣을 분석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파랑던 하늘이 저녁이 되자 붉은 노을빛으로 물들고 있다.  
 ㉡ 건설한 회사에서 아주 새 제품을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 퇴근한 나는 봉사 활동에 참여했지만 그는 곧장 집에 가 버렸다.  
 ㉣ 과일은 햇살에 익어 가고 마당에는 보랏빛 수국이 가득했다.

- ① 관형사형 어미로 현재 시제를 표현한 문장은 ㉠, ㉡이다.
- ② 관형어를 꾸며 주는 부사어를 포함한 문장은 ㉠, ㉢이다.
- ③ 대등적 연결 어미로 겹문장을 나타낸 문장은 ㉢, ㉣이다.
- ④ 본용언과 보조 용언의 결합으로 진행상을 나타낸 문장은 ㉠, ㉣이다.
- ⑤ 필수적 부사어는 ㉠~㉣ 모두에 한 개 이상씩 포함되어 있다.

38. <자료>의 ㉠~㉣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자 료> —

중세 국어에서는 의문문의 종류에 따라 의문문을 실현하는 종결 어미와 보조사가 각각 달리 나타났다. ‘누’, ‘엇던’ 등 의문사가 사용된 설명 의문문에서는 용언 어간에 종결 어미 ‘-뇨’가, 체언 바로 뒤에는 보조사 ‘고’가 결합하였다. 반면, 판정 의문문에서는 종결 어미 ‘-녀’와 보조사 ‘가’가 사용되었다. 한편, 종결 어미 ‘-나다’는 주어가 2인칭인 의문문에서 의문문의 종류와 상관없이 동일한 형태가 쓰였다.

㉠ [중세 국어] 네 스승이 누구  
 [현대 국어] 네 스승이 누구인가?

㉡ [중세 국어] 阿難이 마리 외디 아니혀녀  
 [현대 국어] 아난의 말이 그러지 아니하느냐?

㉢ [중세 국어] 그디 엇던 사루민다  
 [현대 국어] 그대 어떤 사람이냐?

- ① ㉠: 보조사 ‘고’가 체언에 결합하여 의문문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군.
- ② ㉠: 보조사 ‘고’가 의문사 ‘누’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의문문에 사용되었군.
- ③ ㉡: 종결 어미 ‘-녀’가 용언 어간에 결합하여 의문문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군.
- ④ ㉢: 종결 어미 ‘-나다’가 상대에게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에 사용되었군.
- ⑤ ㉢: 종결 어미 ‘-나다’가 2인칭 주어가 실현된 의문문에 사용되었군.

39. <자료>의 ㉠~㉣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자 료> —

어떤 말을 의미를 고려하여 둘로 나누었을 때, 그 둘 각각을 직접 구성 요소라고 한다. 예컨대 ‘볶음밥’은 ‘쌀밥에 여러 재료를 볶아 만든 음식’이라는 의미에 따라 먼저 어근 ‘볶음’과 어근 ‘밥’으로, ‘볶음’은 다시 어근 ‘볶’과 파생 접사 ‘-음’으로 분석되므로 ㉠ 파생 후 합성이 된 단어이다. 이 외에도 ㉡ 파생 후 파생, ㉢ 합성 후 파생, ㉣ 합성 후 합성의 방식으로 단어가 형성될 수 있다.

㉠ 놀이마당: 여럿이 모여 노래하거나 춤추며 노는 자리.  
 ㉡ 콩나물국: 콩나물을 넣고 끓인 국.  
 ㉢ 거짓말투성이: 온통 거짓말뿐인 것.  
 ㉣ 헛소리꾼: 실속이 없고 미덥지 아니한 말을 잘하는 사람.  
 ㉤ 웃음꽃: 꽃이 피어나듯 환하고 즐겁게 웃는 웃음.

- ① ㉠은 ‘놀이’와 ‘마당’으로 분석되므로 ㉠에 해당하는군.
- ② ㉡는 ‘콩나물’과 ‘국’으로 분석되므로 ㉡에 해당하는군.
- ③ ㉢는 ‘거짓말’과 ‘-투성이’로 분석되므로 ㉢에 해당하는군.
- ④ ㉣는 ‘헛-’과 ‘소리꾼’으로 분석되므로 ㉣에 해당하는군.
- ⑤ ㉤는 ‘웃음’과 ‘꽃’으로 분석되므로 ㉤에 해당하는군.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는 ‘공’과 ‘콩’의 소리를 듣고 두 단어의 의미가 다를 수 있는데, 이는 어두에서 실현되는 ‘ㄱ’과 ‘ㅋ’가 의미를 구별해 주기 때문이다. 이처럼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를 음운**이라 한다. 그럼 ‘가구’에서 발음되는 두 ‘ㄱ’은 같은 소리일까? ‘가구’의 **첫음절의 ‘ㄱ’**은 성대의 울림이 없는 **무성음 [k]**이고, **둘째 음절의 ‘ㄱ’**은 앞 모음의 영향을 받아 성대의 울림이 있는 **유성음 [g]**로 실현된다. 하지만 국어의 파열음에서 성대의 울림 여부가 의미 구별에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음성은 다르지만 우리는 음운으로 뜻을 구별함)** 우리는 [k]와 [g]를 하나의 음운 ‘ㄱ’로 인식한다. 이처럼 **한 음운이 환경에 따라 달리 실현되는 소리들을 변이음**이라 하며, 한 음운의 변이음들은 **출현 위치가 서로 겹치지 않는 상보적 분포**를 이룬다. 예컨대 파열음 ‘ㅂ, ㅌ, ㅍ’는 어두에서는 무성음 [p, t, k]로 실현된다. 반면 **모음과 모음 사이, 비음 ‘ㅁ, ㄴ, ㅇ’과 모음 사이, 유음 ‘ㄹ’과 모음 사이에서는 유성음 [b, d, g]로 실현된다.**

이와 유사한 양상은 의미를 가지는 최소 단위인 형태소에도 나타난다. 예컨대 ‘웃’은 조사가 결합되는 환경에서 ‘웃+이[오시]’, ‘웃+도[온포]’, ‘웃+만[온만]’처럼 ‘웃’의 소리가 [웃], [온], [온]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하나의 형태소가 환경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형태들을 이형태**라 한다. 한 형태소의 이형태들은 의미 차이를 만들지 않고, 문법적 기능은 동일하며, 나타나는 환경이 겹치지 않는다(**상보적 분포를 이룬다**).

이렇듯 우리는 **한 음운의 변이음들을 하나의 동일한 음운으로, 한 형태소의 이형태들을 하나의 동일한 형태소로 인식**한다. 한편, 하나의 형태소가 환경에 따라 그 형태가 달리 나타나는 현상은 일어나는 동기에 따라 자동적 교체와 비자동적 교체로 나뉜다. 예컨대 ‘빗다’의 ‘빗-’에 비음 외의 자음이 결합되면 [빈], 비음이 결합되면 [빈]으로 교체된다. 이는 국어에서 종성에 ‘ㄱ, ㄴ, ㄷ, ㄹ, ㅁ, ㅂ, ㅇ’만 발음되고(**음절 구조 제약**), 자음 ‘ㅂ, ㄷ, ㄱ’가 ‘ㅁ, ㄴ’ 앞에 올 수 없기 때문에(**음절 배열 제약**) 반드시 실현되는 **자동적 교체**이다. 반면, ‘(허리가) 굽다’의 ‘굽-’에 모음 ‘-어’가 결합될 때 [구벼]가 되는 것처럼, 국어에서 ‘ㅂ’와 모음이 결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굽다’의 ‘굽-’이 동일한 환경에서 [구워]의 ‘구우’로 교체되는 것은 그 동기를 설명할 수 없는 **비자동적 교체**이다.

35.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②

- ① ‘가구’의 두 ‘ㄱ’은 하나의 동일한 음운이다.
- ② 국어의 파열음에서 성대의 울림은 의미 구별에 영향을 준다.
- **성대의 울림은 의미 구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옳지 않기에 정답.**
- ③ 한 음운의 변이음들은 상보적 분포를 이룬다.
- ④ 한 형태소의 이형태들은 동일한 문법적 기능을 수행한다.
- ⑤ 교체는 하나의 형태소가 환경에 따라, 그 형태가 달리 나타나는 현상이다.

36. 윗글을 바탕으로, ㉠~㉣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료1〉은 음운 ‘ㅂ, ㄷ, ㄱ’가 환경에 따라 실현되는 소리가 달라지는 단어들이고, 〈자료2〉는 종성에 ‘ㅂ, ㄷ, ㄱ’를 갖는 형태소들이 환경에 따라 형태를 달리하는 교체의 예들이다.

	〈자료1〉	〈자료2〉
㉠	바지, 후보	◦잡+아[자바], 잡+는[잡는], 잡+고[잡꼬] ◦출+어[추워], 출+은[추운], 출+고[출꼬]
㉡	더위, 온도	◦달+아[다다], 달+는[단는], 달+고[달꼬]
㉢	거위, 인고	◦먹+어[머거], 먹+는[멍는], 먹+고[먹꼬]

- ① ㉠의 ‘후보’의 [ㅂ]와 달리, ㉠ ‘바지’의 [ㅂ], ㉡ ‘온도’의 [ㄷ], ㉢ ‘인고’의 [ㄱ]는 모두 무성음으로 실현된다.
- **‘후보’의 ‘ㅂ’은 ‘구’와 ‘고’ 사이, 즉 유성음 사이에서 실현되므로 [p]가 아니라 유성음인 [b]로 실현됨.**
- **‘온도’의 ‘ㄷ’, ‘인고’의 ‘ㄱ’은 모두 유성음 사이에 있어 마찬가지로 유성음으로 실현됨. 따라서 적절하지 않음.**
- ② ㉠의 ‘잡+아[자바], 잡+는[잡는], 잡+고[잡꼬]’에서 환경에 따라 형태가 달리 나타난 ‘잡’과 ‘잡’은 서로 다른 형태소이다.
- **환경이 같고 뜻도 같은데 서로 다른 형태소라고 하면 안 된다. + “서로 다른 이형태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적절해 보인다.**
- ③ ㉡의 ‘더위’와 ㉢의 ‘거위’에서 ‘ㄷ’과 ‘ㄱ’은 두 단어의 의미를 구별해 주고, ㉢의 ‘먹’과 ‘멍’은 형태는 다르지만 의미는 같다.
- **ㄷ과 ㄱ은 각각 음운이므로 의미 구별해줌. 먹과 멍은 형태는 다르나 모두 ‘eat’의 의미로 같음. 따라서 정답.**
- ④ ㉡에서 [단는]의 ‘단’, [드러]의 ‘들’, [든는]의 ‘든’은 모두, 자동적 교체의 결과이다.
- **[드러]는 ‘ㄷ’ 불규칙 후 연음의 결과이다. 불규칙 활용은 지문에서 ‘ㅂ’ 불규칙활용을 대표로 하여 비자동적 교체라고 했기에 적절하지 않다.**
- ⑤ ㉢의 [멍는]의 ‘멍’, ㉠의 [추운]의 ‘추우’는 모두, 비자동적 교체의 결과이다.
- **비음화로 인한 [멍는]은 자동적 교체의 결과.**
- **‘ㅂ’ 불규칙 활용으로 인한 [추운]은 비자동적 교체의 결과이다.**

정답은 ③

37. ㉠~㉣을 분석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파랗던 하늘이 저녁이 되자 붉은 노을빛으로 물들고 있다.
- ㉡ 건설한 회사에서 아주 새 제품을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 ㉢ 퇴근한 나는 봉사 활동에 참여했지만 그는 곧장 집에 가 버렸다.
- ㉣ 과일은 햇살에 익어 가고 마당에는 보랏빛 수국이 가득했다.

- ① 관형사형 어미로 현재 시제를 표현한 문장은 ㉠, ㉡이다.
- ② 관형어를 꾸며 주는 부사어를 포함한 문장은 ㉡, ㉣이다.
- ③ 대등적 연결 어미로 겹문장을 나타낸 문장은 ㉢, ㉣이다.
- ④ 본용언과 보조 용언의 결합으로 진행상을 나타낸 문장은 ㉠, ㉣이다.
- ⑤ 필수적 부사어는 ㉠~㉣ 모두에 한 개 이상씩 포함되어 있다.

㉠ 파랗던 하늘이 저녁이 되자 붉은 노을빛으로 물들고 있다.  
 파랗-/던(관형사형 어미, 과거 시제) 하늘/이 저녁/이 되-/자 붉-/은(관형사형 어미, 형용사의 경우 현재 시제) 노을/빛/으로 물-/들-/고 있-(진행상의 본+보조 결합)/-다

필수적 부사어: 노을빛으로

㉡ 건설한 회사에서 아주 새 제품을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건설/하/ㄴ(관형사형 어미, 현재시제) 회사/에서(주격 조사) 아주(부사어) 새(관형어) 제품/을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하/ㄴ(현재시제 선어말 어미)/다

필수적 부사어: 고객에게

→ 관형어를 꾸며주는 부사어 있음.

㉢ 퇴근한 나는 봉사 활동에 참여했지만 그는 곧장 집에 가 버렸다.  
 퇴근/하/ㄴ(관형사형 어미, 동사의 경우 과거시제) 나/는 봉사 활동/에 참여/하/였(있)/지만(대등적 연결 어미) 그/는 곧장 집/에 가/아 버리/였/다.

필수적 부사어: 활동에

→ 관형어를 꾸며주는 부사어 없음. '곧장'은 서술어를 꾸며주는 중.

㉣ 과일은 햇살에 익어 가고 마당에는 보랏빛 수국이 가득했다.  
 과일/은 해/살/에 익/어 가(진행상의 본+보조)/고(대등적 연결 어미) 마당/에/는 보랏/빛 수국/이 가득/하/였(있)/다.

필수적 부사어: 마당에

정답은 ②

38. <자료>의 ㉠~㉣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자 료> —

중세 국어에서는 의문문의 종류에 따라 의문문을 실현하는 종결 어미와 보조사가 각각 달리 나타났다. '누', '엇던' 등 의문사가 사용된 **설명 의문문**에서는 용언 어간에 종결 어미 '-**뇨**'가, 체언 바로 뒤에는 보조사 '**고**'가 결합하였다. (ㄴ행) 반면, **판정 의문문**에서는 종결 어미 '-**녀**'와 보조사 '**가**'가 사용되었다. (ㄷ행) 한편, 종결 어미 '-**니다**'는 **주어가 2인칭인 의문문**에서 **의문문의 종류와 상관없이** 동일한 형태가 쓰였다.

- ㉠ [중세 국어] 네 스승이 누고  
[현대 국어] 네 스승이 누구인가?
- ㉡ [중세 국어] 阿難이 마리 외디 아니히녀  
[현대 국어] 아난의 말이 그러지 아니하느냐?
- ㉢ [중세 국어] 그디 엇던 사루민다  
[현대 국어] 그대 어떤 사람이나?

- ① ㉠: 보조사 '고'가 체언에 결합하여 의문문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군.
- ② ㉠: 보조사 '고'가 의문사 '누'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의문문에 사용되었군.
- ③ ㉡: 종결 어미 '-녀'가 용언 어간에 결합하여 의문문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군.
- ④ ㉢: 종결 어미 '-니다'가 상대에게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에 사용되었군.  
 - '엇던'은 의문사.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설명 의문문임.  
 - 긍정/부정 대답 요구는 판정 의문문이므로 적절하지 않아 정답.
- ⑤ ㉣: 종결 어미 '-니다'가 2인칭 주어가 실현된 의문문에 사용되었군.

정답은 ④

39. <자료>의 ㉠~㉡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료〉

어떤 말을 의미를 고려하여 둘로 나누었을 때, 그 둘 각각을 직접 구성 요소라고 한다. 예컨대 ‘볶음밥’은 ‘쌀밥에 여러 재료를 볶아 만든 음식’이라는 의미에 따라 먼저 어근 ‘볶음’과 어근 ‘밥’으로, ‘볶음’은 다시 어근 ‘볶-’과 파생 접사 ‘-음’으로 분석되므로 ㉠ 파생 후 합성이 된 단어이다. 이 외에도 ㉡ 파생 후 파생, ㉢ 합성 후 파생, ㉣ 합성 후 합성의 방식으로 단어가 형성될 수 있다.

- ㉠ 놀이마당: 여럿이 모여 노래하거나 춤추며 노는 자리.
- ㉡ 콩나물국: 콩나물을 넣고 끓인 국.
- ㉢ 거짓말투성이: 온통 거짓말뿐인 것.
- ㉣ 헛소리꾼: 실속이 없고 미덥지 아니한 말을 잘하는 사람.
- ㉤ 웃음꽃: 꽃이 피어나듯 환하고 즐겁게 웃는 웃음.

- ① ㉠은 ‘놀이’와 ‘마당’으로 분석되므로 ㉠에 해당하는군.  
- 놀- + -이 -> 놀이 + 마당: 파생어와 단일어의 결합이므로 ㉠이 적절하여 정답.
- ② ㉡는 ‘콩나물’과 ‘국’으로 분석되므로 ㉡에 해당하는군.  
- ‘콩나물’이므로 합성 후 합성인 ㉢에 해당.
- ③ ㉢는 ‘거짓말’과 ‘-투성이’로 분석되므로 ㉢에 해당하는군.  
- ‘거짓+말 + -투성이’이므로 합성 후 파생인 ㉣에 해당.
- ④ ㉣는 ‘헛-’과 ‘소리꾼’으로 분석되므로 ㉣에 해당하는군.  
- 헛- + ‘소리 + -꾼’이므로 파생 후 파생인 ㉡에 해당.
- ⑤ ㉤는 ‘웃음’과 ‘꽃’으로 분석되므로 ㉤에 해당하는군.  
- ‘웃- + -음 + 꽃’이므로 파생 후 합성인 ㉢에 해당.

정답은 ①

## 음성과 음절

### 1. 음성

1) 개념: 사람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소리 가운데에서도 말할 때 사용되는 소리.

인간의 발음기관을 통하여 만들어진 소리로 말을 만드는 데 활용되는 분절적인 소리.

**주의 1** 사람의 입에서 나온다고 해서 다 음성은 아니다. 예) 웃음소리, 울음소리, 기침, 재채기 등

[참고] 자연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비분절적인 소리는 음향이라고 한다. 예) 바람 소리

2) 특징: 물리적, 구체적 소리.

분절적인 소리

음운의 실현 단위

3) 실현

(1) 음성은 사람에 따라 다르며,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때와 장소, 상황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발음된다.

(2) 음성은 음절상의 위치에 따라서도 다르게 실현된다.

예) 가곡 - ㄱ ㅏ ㄱ ㅓ ㄱ

[k] [g] [kʰ]

: 표기상으로는 동일하지만 음성학적으로는 각 위치에 따라 다른 소리로 실현된다.

### 2. 음절

1) 개념: 한 문치로 이루어진 소리의 덩어리. 한 번에 낼 수 있는 소리의 단위.

2) 특징

(1) 반드시 모음이 있어야 한다.

(2) 음절의 수는 모음의 수와 일치한다. 이는 모음이 있어야 음절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 모음을 '음절을 이루는 소리'라는 뜻으로 성절음이라고도 한다.

**주의 1** 음절은 표기가 아니라 소리(발음)의 단위이다. 이는 '연필을 깎아 글을 썼다.'라는 문장이 있고, 해당 문장의 음절을 적으려고 했을 때 '연, 필, 을, 깎, 아, 글, 을, 썼, 다'와 같이 표기된 글자 하나하나를 적는 것이 아니고, '연, 피, 름, 까, 까, 그, 름, 썼, 따'라고 적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는 점이다. 뒤에서 배울 음운의 변동, 표준 발음법, 한글 맞춤법에서 종종 언급할 '표기 반영'과 연계되는 지점이기에 미리 알아두면 좋겠다.

3) 실현

(1) 모음 단독 (중성)

예) 아, 어, ...

(2) 자음+모음 (초성+중성)

예) 가, 나, ...

(3) 모음+자음 (중성+종성)

예) 악, 안, ...

(4) 자음+모음+자음

(초성+중성+종성)

예) 강, 날, ...,

## 보충 이론 (1) 음성과 음절

### 4) 음절에 관한 제약

#### (1) 음절 구조 제약

① 음절을 이루는 초성, 중성, 종성에 대한 제약.

② 한 음절 내부의 문제 상황을 살펴야 한다.

#### ③ 유형

a) 초성에 올 수 있는 자음의 최대 개수는 1개이다.

b) 연구개 비음 'ㅇ'은 초성에 올 수 없다.

c) 종성에 올 수 있는 자음의 최대 개수는 1개이다.

⇒ 이 제약을 어기면 자음이 하나 탈락한다.

예) 흙[후]

d) 종성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 7개만이 올 수 있다.

⇒ 이 제약을 어기면 ㅂ, ㄷ, ㄱ 중 한 자음으로 바뀐다.

예) 짓[꺠]

e) 현실 발음 기준으로 종성에 'ㄱ'이 쓰였을 때, 종성에는 자음이 올 수 없다.

#### (2) 음절 배열 제약

① 음절과 음절 사이의 결합에 대한 제약으로, 음절 구조 제약이 한 음절 내부의 상황을 살핀 것과 비교되는 또 다른 제약이다.

- 후행 음절 초성의 음운론적 강도는 선행 음절 종성의 음운론적 강도보다 작으면 안 된다. (같거나 크다)

- 후행 음절 초성의 공명도는 선행 음절 종성의 공명도보다 크면 안 된다. (같거나 작다)

-> 위의 두 문장을 쉽게 요약하면, 뒤에 오는 자음이 앞에 오는 자음과 비교할 때 성격이 같거나 더 세야 한다는 것이다.

#### ② 유형

a) 비음(ㅁ, ㄴ) 앞에는 장애음(ㅂ, ㄷ, ㄱ)이 올 수 없다.

⇒ 이 제약을 어기면 장애음(ㅂ, ㄷ, ㄱ)이 비음(ㅁ, ㄴ, ㅇ)으로 바뀐다.

예) 국+물 -> [궁물], 듣+는+다 -> [듣는다]

b) 'ㄹ' 앞에는 'ㄹ' 이외의 자음이 올 수 없다.

⇒ 이 제약을 어기면 후행하는 'ㄹ'이 'ㄴ'으로 바뀌거나 선행하는 자음('ㄴ')이 'ㄹ'로 바뀐다.

예) 공권+력 -> [공권ㄹ], 의견+란 -> [의견ㄴ], 신라 -> [실라], 난리 -> [날리]

### [참고] 음운론적 강도, 공명도

자음 중 음운론적 강도가 큰 순서: 장애음 > 비음 > 유음

자음 중 공명도가 큰 순서: 유음 > 비음 > 장애음

모음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는 궁금증이 생길 텐데, 모음은 유음보다 음운론적 강도가 약하고, 공명도가 크다.

보충 이론 (2) 이형태, 자동적 교체 + 비자동적 교체

4. 이형태: 의미와 기능, 분포하는 자리가 같은 하나의 형태소이지만 다른 형태를 가진 형태소.

1) 형태소와 형태

- (1) 형태소는 그 속에 포함되는 이형태 전부를 포괄하는 뜻을 지닌다.
- (2) 형태는 형태소가 환경에 따라 실제 어형으로 나타난 것이다.

예) 흙

- ① 형태
- ② 형태소 → '흙' 외에 '혹', '흥'을 포함한다.

예) 흙이 /흙기/, 흙도 /혹또/, 흙만 /흥만/

'흙'을 형태소라 할 때 {흙}으로 표시하며, 형태소 {흙}은 '흙' 외에 '혹'과 '흥'을 포함한다.

'흙', '혹', '흥'은 각각 형태가 되며, 이들은 형태소 {흙}에 대하여 이형태 관계에 있다.

2) 확립 요건

- (1) 의미의 동일성\* (= 의미가 다르면 이형태가 아니다.)

예) 책을 읽었다. / 잡지를 읽었다.

음악을 듣지요. / 음악을 들으니 안정돼요.

(2) 상보적 분포

- 어떤 요소들이 나타나는 환경이 겹치지 않고 배타적이면서 서로가 합쳐서 보완한다.

예) 소설을 읽었다.

↳ '을'은 자음 다음에만 나온다.

⇒ /을/, /를/은 상보적 분포를 이룬다.

잡지를 읽었다.

↳ '를'은 모음 다음에만 나온다.

3) 종류

- (1) 음운론적 이형태: 하나의 형태소가 다른 음운 환경에서 다른 형태를 갖고 있는 이형태

예) 주격 조사 '이/가', 목적격 조사 '을/를': 선행하는 음운이 자음이나 모음이냐에 따라 선택된다.

- (2) 형태론적 이형태: 하나의 형태소가 다른 형태 환경에서 다른 모습을 띠는 것.

음운론적 이형태로 설명할 수 없는 이형태를 말한다.

예)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은 어간 '하-' 뒤에선 '-였-'으로 나타난다.

Q6. 밑줄 친 말이 <보기>의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013학년도 수능 11번]

〈보 기〉

형태소는 의미를 가진 최소 단위이다. 하나의 형태소가 실제로 쓰일 때에는 그 앞뒤에 어떤 말이 있느냐에 따라 둘 이상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 모습들을 이형태(異形態)라고 한다. 예컨대 주격 조사는 앞말이 자음으로 끝날 때 ‘이’로 나타나고 모음으로 끝날 때 ‘가’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와 ‘가’는 ㉠ 이형태 관계에 있는 것이다.

- ① 공연을 보러 우리는 광주에 왔다.  
나를 만나러 친구들이 경주에서 왔다.
- ② 동수는 물감으로 인물화를 그렸다.  
진희는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렸다.
- ③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 탁구나 치자.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 수영이나 하자.
- ④ 정성이 담긴 선물을 받으면 기쁩니다.  
정성을 담은 선물을 주면 자기도 기쁩니다.
- ⑤ 미끄러지지 않도록 단단히 잡어라.  
체하지 않도록 천천히 씹어 먹어라.

‘에’와 ‘에서’는 예문에서 의미가 각각 도착점, 출발점의 의미로 다르다.  
정답은 ①

**주의 3** 매개 모음 ‘-으-’

형태소란 뜻을 가진 최소의 단위인 까닭에 ‘-으-’가 실질적, 형식적 기능을 해야만 형태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으-’는 홀로 실질적 의미를 갖지 못하며, 실질 형태소에 붙더라도 말과 말 사이에서 문법적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한다. 다만 발음의 편의상 들어가기 때문에 형태소가 아니다. 즉, 분석 대상이 아니다.

예) 먹다 => 먹으니, 먹으면, 먹으나 / 들다 => 들으니\*(듣- + -으니)

**주의 4** 사이시옷 ㅅ

촛불, 바닷가, 뱃길, 낫병, 텃세, 아랫니, 윗니, 냇물, 갯날, 양치물, 뒷일, 깃털, 나뭇잎, 예삿일, …… 등 이런 단어들을 한 번쯤은 봤을 것이다. 여기서 ‘촛불’만 가져와 형태소 분석해 보자면 ‘촛+불’이 된다. ‘ㅅ’은 사이시옷이라 하는데, 사이시옷은 사잇소리 현상에 의한 표시로서 형태소가 아니다.

[7~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형태소는 일정한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단위를 말하며, 한 형태소는 다른 형태소와 결합하여 단어나 구, 문장과 같은 상위 단위를 이룬다. 이때 형태소는 항상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환경에 따라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 이처럼 한 형태소가 환경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실현되는 것을 교체라고 한다. 특히 한국어는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 주는 조사와 어미가 발달해 있어서 형태소끼리의 결합 과정에서 다양한 교체 현상이 나타난다.

빛 : 빛이[비치], 빛도[빈또], 빛만[빈만], 쪽빛이[쪽삐치], 쪽빛도[쪽빔또], 쪽빛만[쪽빔만]

물 : 물이[무리], 물도[물도], 물만[물만], 국물이[궁무리], 국물도[궁물도], 국물만[궁물만]

'빛'은 앞이나 뒤에 오는 형태소에 따라 6개의 서로 다른 형태로 실현된다. 이처럼 교체에 의해 달리 실현된 형태들을 이형태라고 한다. 교체가 일어난다는 것은 한 형태소가 최소한 둘 이상의 이형태를 가짐을 뜻한다. 이형태들은 나타나는 조건이나 환경이 겹치지 않는 상보적 분포를 지닌다. 한편 '물'은 앞이나 뒤에 어떠한 형태소가 오든지 항상 '물'로만 실현된다. 즉 교체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교체를 통해 이형태가 복수로 존재할 경우에는 기본형을 정해준다. 한 형태소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이형태들로 실현되면 이형태들을 대표할 수 있는 형태를 하나 설정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본형이다. 교체를 하지 않는 형태소의 경우 그 자체가 기본형이 되지만 교체를 하는 형태소는 기본형을 따로 정해야만 한다.

또한 형태소의 교체는 일어나는 동기에 따라 자동적 교체와 비자동적 교체로 나눌 수 있다. ㉠ 자동적 교체는 교체가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실현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교체를 말한다. 음절의 종성에 두 개의 자음이 발음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음운론적 제약이나 비음 앞에 평파열음인 'ㄱ, ㄷ, ㅂ'이 올 수 없다는 음운론적 제약 등으로 일어나는 교체가 자동적 교체이다. 예를 들면 '떡물' → [명물]에서 '떡'이 비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인 '물'과 결합할 때 '명'으로 교체를 보이는 경우이다.

다음으로 ㉡ 비자동적 교체는 반드시 일어나야 할 필연적 이유가 없는 교체를 말한다. 즉 '감다' → [감:따]는 비음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서 '-따'로 교체되는 경우로, 이는 비음 뒤에 'ㄱ, ㄷ, ㅌ'와 같은 자음이 오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은 아니다. 용언의 어간 말음이 비음으로 끝나고 뒤에 어미가 올 때에만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날 뿐, '단검' → [단:검]과 같이 다른 환경에서는 얼마든지 비음과 'ㄱ, ㄷ, ㅌ' 등이 결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7. ㉠, ㉡에 해당하는 예끼리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2021년 고2 9월 학평 11번]

	㉠	㉡
①	믿는[민는]	안고[안:꼬]
②	삶도[삼:도]	김장[김장]
③	입은[이븐]	넙다[넙:따]
④	밭만[밤만]	앉는[안는]
⑤	닭이[달기]	삼고[삼:꼬]

8.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1년 고2 9월 학평 12번]

< 보 기 >

㉠ 닭 : 닭이[달기], 닭도[닥또], 닭만[당만], 통닭은[통달근]

㉡ 책 : 책이[채기], 책도[채또], 책만[채만], 공책은[공채근]

㉢ 밥 : 밥이[바비], 밥도[밥또], 밥만[밤만], 찬밥은[찬바븐]

㉣ 달 : 달이[다리], 달도[달또], 달만[달만], 반달은[반:다르]

㉤ 잎 : 잎이[이피], 잎도[입또], 잎만[임만], 솔잎은[솔리븐]

- ① ㉠ : '닭'의 이형태들은 상보적 분포를 보이는군.
- ② ㉡ : '책'은 기본형을 따로 정할 필요 없이 그 자체로 기본형이 되겠군.
- ③ ㉢ : '밥'이 이형태를 가지는 것으로 보아 교체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겠군.
- ④ ㉣ : '달'은 앞이나 뒤에 어떠한 형태소가 오더라도 하나의 형태로만 나타나는군.
- ⑤ ㉤ : '잎'은 환경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므로 이형태들을 대표할 수 있는 기본형을 설정하겠군.

**11. [출제의도] 자동적 교체와 비자동적 교체 구별하기**

4문단에 따르면 ‘믿는’의 ‘믿-’은 비음인 ‘ㄴ’ 앞에 평파열음인 ‘ㄷ’이 올 수 없어 ‘민-’으로 교체되었으므로 자동적 교체에 해당한다. 5문단에 따르면 ‘안고’는 비음으로 끝나는 어간 ‘안-’ 뒤에서 ‘-고’가 ‘-꼬’로 교체되는 경우로, ‘-고’는 비음인 ‘ㄴ’ 뒤에 ‘ㄱ, ㄷ, ㅈ’과 같은 자음이 오지 못해 ‘-꼬’로 교체된 것이 아니므로 비자동적 교체에 해당한다.

정답은 ①

**12. [출제의도] 이형태의 특징 탐구하기**

⑥의 ‘책’은 환경에 따라 ‘책이[채기]’, ‘공책은[공채근]’, ‘책도[책또]’에서는 ‘[책]’으로 ‘책만[챙만]’에서는 ‘[챙]’으로 실현된다. 따라서 ‘책’은 기본형을 따로 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형태가 복수로 존재하여 기본형을 정해 주는 경우에 해당한다.

① ㉔의 ‘닭’은 환경에 따라 ‘[닥]’, ‘[당]’ 등으로 실현되며 상보적 분포를 보인다. ⑤ ㉔의 ‘앞’은 환경에 따라 ‘[압]’, ‘[임]’ 등으로 실현되므로 이들을 대표할 수 있는 형태인 ‘앞’을 기본형으로 설정한다.

정답은 ②

보충 이론 (3) 중세 시기 의문문

의문문	보조사	판정(가/아 형)
		설명(고/오 형)
	1, 3인칭	판정: ㅏ형(대표형이 'ㅏ'인 것. ㅏ, ㅑ, ㅓ, ㅕ 등)
		설명: 의문사 + ㅏ형
2인칭*	판정, 설명 의문문이 '아/어-오'로 구별되지 않음. 의문사 유무로 판별. -ㄴ다(과거, ㅎ라체), -는다(현재, ㅎ라체), -ㄹ다/-ㄹ따/-ㄹ다 (미래)	

그 외 중세 시기 문장 관련 이론 일부.

4) 피동문

단형	실현	타동사 어근 + -이-, -히-, -기-
	예시	동문이 도로 다티고 므리 솟글허 숲기더니
장형	실현	타동사 어근 + -어디다
	예시	브르매 죽순이 것거뎃고
파생 접미사에 기대지 않은 경우*	예시	뫼해 살이 박거늘(산에 화살이 박히거늘) [2022년 고2 9월 12번]

5) 사동문

단형	실현	자/타동사, 형용사 어근 + -이-, -히- -기- -오/우- -호/후-
	예시	한비를 아니 그치샤 향을 무틴 사르미 모매 태자   도리 일우샤
장형	실현	자/타동사, 형용사 어근 + -게/기 ㅎ-
	예시	하늘히 당다이 이 피를 사름 드외에 ㅎ시리랴 座를 ㅎ호아 앓기 ㅎ면

보충 이론 (3) 중세 시기 의문문

6) 시간 표현

시제	과거	실현	선어말 어미가 없다. 회상 시제 선어말 어미 -더- [2, 3인칭]/ -다(-더- + -오-) [1인칭]
		예시	네 아버지 ㅎ마 주그니라[죽+(으)니+다]
	현재	실현	동사 어간 + 선어말 어미 -느- 형용사에는 현재 시제를 표시하는 특별한 형태가 없다.
		예시	네 이제 또 묻는다 내 오늘 實로 有情호라
	미래	실현	선어말 어미 -(으)리-, 관형사형 '-르'
		예시	敬天勤民 ㅎ샤사 더욱 구드시리이다
동작상	완료	실현	-아/어 잇-/이시- (> -엇-/엇- > -앗-/엇- > -았/었-)
		예시	드른 이 넷 ㄱ올히 볼갓느니라(불+아 잇+느+니+다)
	진행	실현1	-고 잇-/시-: 현대 국어는 이 형태가 넓게 분포되어 있어 상태의 지속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쓰이고 있으나 중세 국어는 그 예가 많지 않다. 예) 도훈 차반 먹고 이쇼디
		실현2	-아/어 잇-/이시-: 현대 국어에는 없는 현상으로 주목할 만한 지점이다. 예) 네 이제 사르미 모물 得하고 부터를 만나 잇느니 누늘 長常 쌀아 잇더라

7) 높임법\*\*

주체	실현	선어말 어미 -시- + (자음 어미) -샤- + (모음 어미)
	예시	가시니이다 / 가샤디[가+샤+오디]
객체**	실현	선어말 어미 -습/술-(받침 'ㄱ, 바, 사, ㅎ' 뒤), -줍/줄-(받침 'ㄷ, ㅌ, ㅈ, ㅊ' 뒤), -습/술-(울림소리 뒤) *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술-', '-줄-', '-습-'으로 실현되었다. [2019학년도 수능 14번] [참고 1]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쓰이는 조건은 객체가 주체나 화자나 청자보다 존귀한 인물일 때였다. [참고 2]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의 형태는 현대 국어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며 그 흔적(음, 사음, 자음)으로 남아 상대를 높이는 표현(공대법)으로써 기능이 변화했다. [참고 3] 현대 국어의 객체 높임은 '깨'나 특수 어휘(모시다, 드리다, 여쭙다, 뵙다)**에 제한되어 나타난다.
	예시	돕습고, 묻줍고, 보습고, 왕이 부텃기 더욱 敬信(경신)흔 ㅁㅁㅁ 내수박
상대	ㅎ쇼셔체	선어말 어미 '-이-(평서문), -잇-(의문문)', 명령형 어미 '-쇼셔'로 표현되었다.
	ㅎ야썌체	청자를 보통으로 낮추거나 높인다. 'ㅣ' 모음 뒤에는 'ㅇ'으로, 그 밖의 모음 뒤에는 'ㅇ'으로 실현된다. 의문형에서는 '-스-('-'ㅅ-' 또는 '-닛-' 견해 有) 예) 그런 내 ㅼ들 몰라 ㅎ댕다 / 그딴 아버니미 잇느닛가
	ㅎ라체	아주 낮춤의 표현이다. 예) 첫소리를 어울워 ㅼ 디면 ㄱㅼㅼㅼㅼ
	반말	'-니, -리'로 종결되는 형태로 표현된다. 예) 내 이를 어엿비 너겨 새로 스물 여덟 字ㅼ를 ㅁㅁㅁ노니

보충 이론 (4) 직접 구성 요소

주의 7 직접 구성 요소 분석(Immediate Constituents, 일명 I.C 분석)\* [2017학년도 9월 모평 11~12번]

정의: 단어 구성을 층위로 갈랐을 때 제일 먼저 갈라지는 두 구성 요소.  
평가원: 어떤 말을 직접 이루고 있는 두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나오는 두 요소.

▶ 당시 출제 지문 중 일부

여러 형태로 이루어진 단어나 여러 단어들로 이루어진 문장은 그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가령, '민물고기'가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 판별하기 어렵고 "언니가 찾던 책이 여기 있구나."와 같은 문장에서 주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이처럼 복잡한 단어나 문장의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직접 구성 요소 분석이 있다.

직접 구성 요소란 어떤 말을 직접 이루고 있는 두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나오는 두 요소이다. 위의 '민물고기'에서는 '민물'과 '고기'가 직접 구성 요소가 된다. 이 분석은 '민물'에 대해서도 더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직접 구성 요소를 분석해 보면 한 단어에 합성과 파생 과정이 모두 있는 '민물고기'는 파생어가 아닌 합성어임을 알 수 있다.

직접 구성 요소 분석 시에는 특히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직접 구성 요소로 분석되는 말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하는 점이다. 가령, '살얼음'은 '살-'과 '얼음'으로 분석해야 하는데, 만약 '살얼-'과 '-음'으로 분석하면 '살얼다'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잘못된 분석이 된다. 둘째, 직접 구성 요소들과 그 전체 구성의 의미가 서로 통하는가 하는 점이다. '벽돌집'을 직접 구성 요소로 나누면 '벽돌'과 '집'이 분석된다. 이를 '벽'과 '돌집'으로 나누면 '벽돌로 만든 집'이라는 의미를 갖지 못한다.

(하략)

Q6 <보기>는 밑글을 바탕으로 진행된 학습 활동이다.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2017학년도 9월 모평 11번]

<보기>

**학 생** : '민물고기'에 있는 접두사 '민-'은 '민물고기'의 직접 구성 요소가 아니라, '민물'을 직접 구성 요소로 분석할 때 나오는 것이군요. 이제 왜 '민물고기'가 파생어가 아니라 합성어인지 알겠어요.

**선생님** : 직접 구성 요소 분석에 대해 잘 이해했구나. 그럼 아래의 단어들도 분석해 보자.

㉠ 나들이웃	㉡ 눈웃음	㉢ 드높이다	㉣ 집집이	㉤ 놀이터
--------	-------	--------	-------	-------

- ① ㉠은 그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합성어인 합성어이다.
- ② ㉡는 그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파생어인 합성어이다.
- ③ ㉢는 그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합성어인 파생어이다.
- ④ ㉣는 그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파생어인 파생어이다.
- ⑤ ㉤는 그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합성어인 파생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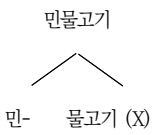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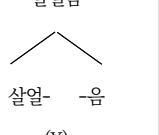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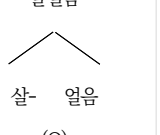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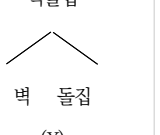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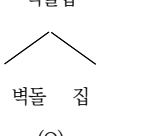
정답 해설

- '나들-(어근) + -이(접사)' → 나들이(파생어)(어근) + 웃(어근) → 어근 + 어근 = 합성어이므로 ②가 정답.

보충 이론 (4) 직접 구성 요소

▶ 지문 정리

→

 <p>민물고기 민- 물고기 (X)</p>	 <p>민물고기 민물 고기 (O)</p>	 <p>살얼음 살얼- -음 (X)</p>	 <p>살얼음 살- 얼음 (O)</p>	 <p>벽돌집 벽 돌집 (X)</p>	 <p>벽돌집 벽돌 집 (O)</p>
직접 구성 요소가 접사와 합성어.	직접 구성 요소가 파생어와 단일어.	직접 구성 요소가 파생어와 접사.	직접 구성 요소가 접사와 파생어.	직접 구성 요소가 어근과 합성어.	직접 구성 요소가 합성어와 어근.
<p>'민-' 접두사는 민달팽이처럼 "껍질이 없는 맨"의 의미로 해석되기에 민물고기가 가진 원래 의미와 달라져 버리므로 잘못된 분석. '민물'에 '고기'가 합성된 합성어로 본다.</p>		<p>'살얼다'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잘못된 분석. '살-'에 '얼음'이 결합한 파생어로 본다.</p>		<p>'벽돌로 만든 집'이라는 의미를 갖지 못하므로 잘못된 분석. '벽돌'에 '집'이 결합한 합성어로 본다.</p>	

보충 이론 (5) 관형사형 어미

2027학년도 6월 모의 평가 언매 37번 관련해서는 2020학년도 수능 14번을 다시 풀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8. <학습 활동>을 해결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2020학년도 수능 14번]

〈 보기 〉

관형사형 어미의 형태는 시제 및 단어의 품사에 의해 결정된다. [자료]에서 밑줄 친 단어의 품사와 시제를 분석하여 그 단어에 쓰인 어미가 [표]의 ㉠~㉣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자.

[자료]

- |                        |                          |
|------------------------|--------------------------|
| ㉠ 하늘에 <u>뜬</u> 태양      | ㉡ 우리가 즐겨 부르던 노래          |
| ㉢ 늘 <u>푸르던</u> 하늘      | ㉣ 운동장에 <u>남은</u> 아이들     |
| ㉤ 네가 <u>읽는</u> 소설      | ㉥ 이미 아이들로 가득 <u>찬</u> 교실 |
| ㉦ 달리기가 제일 <u>빠른</u> 친구 |                          |

[표] 관형사형 어미 체계

	동사	형용사
현재	-는	㉠
과거	㉡	㉢
	-던	
미래	-(으)㉣	-(으)㉣

- ① ㉠의 '뜬'에 쓰인 어미 '-(으)㉣'은 ㉠에 해당한다.
- ② ㉡의 '부르던'과 ㉢의 '푸르던'에 쓰인 어미 '-던'은 ㉢에 해당한다.
- ③ ㉣의 '남은'과 ㉥의 '찬'에 쓰인 어미 '-(으)㉣'은 ㉣에 해당한다.
- ④ ㉤의 '읽는'에 쓰인 어미 '-는'은 ㉠에 해당한다.
- ⑤ ㉦의 '빠른'에 쓰인 어미 '-(으)㉣'은 ㉣에 해당한다.

정답 해설

㉠과 ㉡은 '-(으)㉣', ㉢은 '-던'이다. ㉣의 '남은'은 동사이므로 '남은'에 쓰인 '-은'은 ㉣에 해당한다. ㉥의 '찬'도 동사이다. 과거에 아이들이 교실에 들어가 가득하게 되었고 그것이 지속되고 있음을 서술한 것이다. 따라서 '찬'에 있는 '-㉣' 역시 ㉣에 해당한다. 정답은 ③